

# 국민계정 편제(2015년 기준)를 위한 경제활동분류(안)의 구축

이인규\*, 김윤경\*\*

한 나라의 경제를 정합적이고 통합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국민계정은 해당 국가의 경제 현황을 나타내는 종합 상황판으로써 국가 간 비교에 활용되는 중요한 국가통계이다. 따라서 국민계정 통계는 UN 등 국제기구에서 합의된 개념과 원칙, 분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국민계정 편제 기관으로서 새로운 국제기준의 이행, 추계방법 개선 및 기초자료 확충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국민계정의 생산계정을 위한 경제활동분류는 경제구조 분석과 생산성 측정을 위해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계정은 제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 구조적 특징을 고려하여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의 대분류보다 자세한 30부문으로 경제활동을 분류하고 있는데, 여타 산업분류와 직접 연계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2015년 기준년 개편에 앞서 국민계정 편제를 위한 경제활동분류(Korean Classification of Economic Activities for National accounts; KCEAN)(안)을 개편하였다.

새롭게 개정된 경제활동분류(KCEAN rev.1)는 과거 계열과의 일관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한편 국내의 표준산업분류와의 연계성을 높여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을 강화하였다. 계층적 분류(hierarchical classification) 체계를 도입하여 분류의 통합신설 등 개편이 용이하고, 세분화 정도가 다르게 공표되는 통계에 대해서도 상위 분류에서 연계가 수월하도록 구성하였다. 국민계정 편제와 활용에 초점을 맞춘 경제활동분류 체계를 갖춤으로써 국민소득, 산업연관표, 국민대차대조표 등 실물 통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보다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 머리말

### II. 경제활동분류를 위한 기본 개념

1. 경제활동
2. 통계식별단위
3. 생산 활동의 유형과 결합 생산
4. 주활동 판단 기준

### III. 국민계정 편제를 위한 경제활동분류(KCEAN)

1. 기본 방향
2. 분류 체계
3. 주요 변경 사항

## IV. 맺음말

\*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투입산출팀 차장(E-mail: inguc@bok.or.kr, Tel: 02-759-4395)

\*\*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투입산출팀 조사역(E-mail: YounKyeong@bok.or.kr, Tel: 02-759-5093)

# I. 머리말

국민경제의 종합 재무제표라고 불리는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은 한 나라 내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 결과를 다양한 각도에서 측정한 것으로 국민소득통계,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국민대차대조표의 5대 경제통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통계들은 각각의 작성 목적과 배경에 따라 독자적으로 발전하여 왔지만, 한 국가의 경제를 구성하는 모든 경제 주체들의 상호 작용을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각각의 통계가 담고 있는 정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sup>1)</sup>.

한 나라의 경제를 종합적이고 통합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국민계정은 해당 국가의 경제 현황을 나타내는 종합 상황판으로써 국가 간 비교에 활용되는 중요한 국가 통계이다. 따라서 각 국가의 경제 환경은 서로 달라도 국민계정 통계는 통일된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UN 등 국제기구는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라는 편제지침서를 마련하여, 이를 기준으로 국민계정을 편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sup>2)</sup>. 국민계정 체계는 1953년 처음 제정된 이후 이론적 배경을 강화하고 현실 경제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2008년 새롭게 개정된 국민계정체계(이하 2008 SNA)에서는 가공무역, 중계무역 등 새로운 유형의 대외 거래에서 나타나는 국가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그 동안의 경제환경 변화, 방법론의 개선, 통계 수요자들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세부 계정 처리방식이 상당 부분 추가 또는 수정되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을 편제하는 기관으로서 1958년 국민소득통계를 공표한 이래 열 한 차례의 기준년 개편과 새로운 국제기준의 이행, 추계방법 개선 및 기초자료 확충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며, 2014년 국민대차대조표를 공식 발표함으로써 5대 국민계정

1) 국민소득통계는 일정 기간 동안 경제주체들이 생산에 참여한 결과로 창출된 국민소득이 어떻게 처분되는지를 나타내는 국민경제의 손익계산서라고 볼 수 있고, 산업연관표는 경제활동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의 상호 거래관계(투입구조)와 소비, 투자, 수출의 최종수요(배분구조)를 보여주는 제조원가명세서라 할 수 있다. 자금순환표는 다양한 금융활동들이 생산·지출 등 실물활동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정리한 현금흐름표에 해당하고, 국제수지표는 국가 간에 발생한 실물과 자금의 흐름을 기록한 외환수지계산서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대차대조표는 일정 시점에서 한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의 실물자산(생산설비, 토지, 건물 등), 무형의 비금융자산, 대내외 금융자산 및 부채를 모두 기록해 국부(國富)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국민경제의 대차대조표로서 의미를 갖는다.

2) UN은 1953년 「국민계정체계와 부표」(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and Supporting Tables: 1953 SNA)라는 국민소득통계 편제지침서를 발표하였으며, 이후 1968년에 새로운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68 SNA)를 통해 5대 국민경제통계 체계를 갖추고, 1993년에 UN, OECD, IMF 등의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1993 SNA를 개정하였다. 그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세계화 등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을 반영하여 개정 2008 SNA를 발표하였다.

통계를 모두 작성하는 편제 체계를 확립하였다. 특히 2010년 기준년 개편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2008 SNA의 개정 사항을 이행하는 한편, 국민계정의 정합성 제고에 유용한 공급사용표(supply and use tables)를 신규 편제하는 등 국민계정 편제 시스템을 개선하였다<sup>3)</sup>. 공급사용표는 경제활동별 생산과 재화 및 서비스별 수요 사이의 균형 관계를 쉽고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2008 SNA에서도 작성을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존 상품 기준의 산업연관표(이하 투입산출표)와 경제활동 기준의 공급사용표를 함께 편제함으로써 산업연관분석은 물론 국민소득통계의 생산계정(production accounts)과 직접 연계가 가능해졌다<sup>4)</sup>.

한편 경제구조 분석과 생산성 측정 등에 주로 활용되는 생산계정은 경제활동분류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08 SNA는 국가간 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산업분류(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All Economic Activities; ISIC)에 따라 경제활동을 분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마다 개별 산업이 자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는 물론 산업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상위분류에서 ISIC의 기준을 준수하되 하위 세분류는 자국의 현실을 반영한 독자적인 분류 기준을 갖추고 있다<sup>5)</sup>.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고시하는데 ISIC 등 국제 기준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고<sup>6)</sup>, 국민소득통계를 한국은행에서 편제해 온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국민계정의 경제활동분류는 독자적으로 발전해 왔다. 현재 생산계정을 위한 경제활동분류는 ISIC의 대분류보다 자세한 30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특징을 고려한 것이지만, KSIC 등 여타 산업분류와 직접 연계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15년 기준년 개편과 함께 경제활동분류를 국민계정의 편제와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함으로써 과거 계열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국내외 표준산업분류와의 연계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 3) 2008 SNA의 주요 개정내용과 이행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계정리뷰 2013-4호 「국민계정 작성 기준의 변경과 그 영향」, 국민계정리뷰 2014-3호 「국민계정의 새로운 국제기준(2008 SNA) 이행 특집호」, 「한국의 국민계정, 2014」(2015)을 참조
- 4) 산업연관표는 분류 기준에 따라 상품분류 기준의 투입산출표와 경제활동분류 기준의 공급사용표로 구분할 수 있는데, 투입산출표는 생산 및 고용파급 효과 등 산업연관분석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공급사용표는 생산 및 지출 계정 등 국민계정 작성에 초점을 맞춘 통계표이다.
- 5) 국제표준산업분류는 국가간 산업통계의 호환성을 위해 1948년 UN에 의해 처음 도입 되어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념, 정의, 원칙과 분류기준에 근거한 논리적이고 일관된 분류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2008년 4차 개정안이 고시되었다. UN은 회원국들에게 산업관련 통계를 편제할 때 국제표준분류의 포괄범위와 분류 기준에 대응되는 활동분류 체계를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
- 6) 한국표준산업분류는 1963년 광업과 제조업 부문에 대한 산업분류 제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최근 10차 개정이 확정·고시(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KSIC 10차 개정은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Rev.4, 2008년)의 개정 내용을 추가 반영하여 국제기준과의 차이점이 개선되었으나, 국민계정 개편의 기준년이자 주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2015년 경제총조사」는 이전 분류인 9차 개정을 따르고 있다.

<참고>

주요 국가의 산업분류체계\*

기관/국가	산업분류	분류구조				
		대	중	소	세	세세
UN	ISIC	20	87	236	417	-
Eurostat	NACE	20	87	270	613	-
미국	USA NAICS	24	99	310	708	1056
캐나다	SCIAN (NAICS_canada)	24	101	321	707	922
일본	JSIC	20	98	527	1453	-
중국	ICNEA	19	96	472	1380	-
홍콩	HSIC	20	87	220	482	1000
한국	KSIC	20	76	231	493	1193
영국	UKSIC	20	87	270	613	726
독일	WZ	20	87	270	613	837
프랑스	NAF	20	87	270	613	730
네덜란드	SBI	20	87	269	617	924
체코	CZ-NACE	20	87	270	613	723

\* 국민계정의 추계대상이 아닌 국제기구(section U)는 제외

## II . 경제활동분류를 위한 기본 개념

이 장에서는 경제활동분류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에 앞서 통계식별단위(statistical units), 생산활동의 종류 및 결합생산의 형태 등 경제활동분류를 위한 기본 개념과 경제활동을 판단하는 top-down방식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경제활동

SNA에서 경제활동은 경제적 생산 활동(productive activity)으로 국한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산 활동이란 경제 개체(economic entity)의 책임과 통제 하에 노동, 자본, 에너지, 중간재 등을 사용하여 다른 유형의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sup>7)</sup>. 따라서 경제활동분류는 경제 개체가 수행한 생산 활동의 유형을 의미하며, 생산 공정 및 기술구조, 생산 투입요소, 산출물의 용도 등 유사성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산출물의 특성이 분류의 한 요소이지만, 경제활동분류는 생산주체가 행하는 생산 활동 자체의 유사성을 구분하기 위한 분류체계이므로 산출물 자체의 유사성에 기초하는 생산품분류(product classification)와는 구별된다. 실제로 생산품분류는 동일한 재화를 생산하지만 생산 방법이나 목적, 유통 구조 등의 차이로 경제활동분류는 서로 다르게 분류될 수 있고, 반대로 전혀 다른 특성의 재화를 생산하더라도 경제활동분류는 같은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sup>8)</sup>. 경제활동을 분류하는데 있어 생산 조직의 유형이나 형태(법인, 개인, 공기업 등), 생산 장소(공장 또는 가내 등), 법적 소유권 여부 등의 기준보다 생산 활동의 유사성에 중요성을 두며, 개념적으로 국민계정의 제도부문(institutional sector) 분류와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sup>9)</sup>.

이처럼 생산 활동 측면의 유사성(production-oriented classification)을 기준으로 한 경제활동

7) 일반적인 의미에서 경제 행위 또는 경제 활동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소비와 관련한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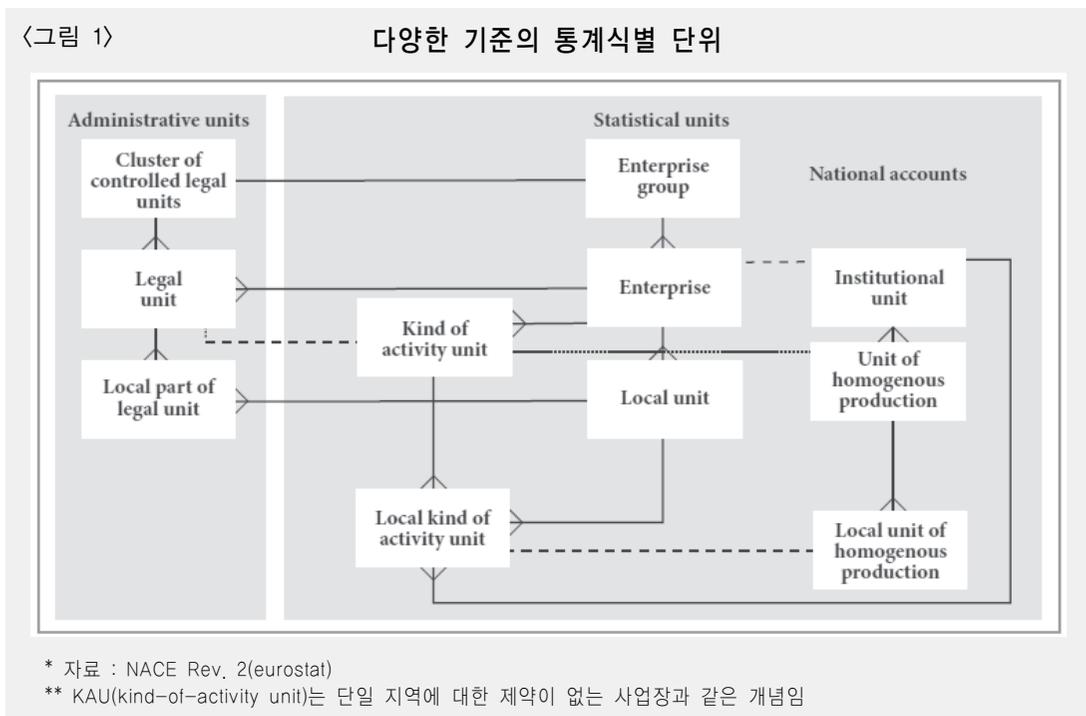
8) 예를 들어 식품품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빵과 제과점에서 제빵사가 직접 구워내는 빵은 흡사 제품의 형태와 용도는 유사하지만, 대량생산하여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하는 제조업의 생산 활동과接客시설을 갖추고 방문 고객을 위해 생산하는 제과점의 생산 활동은 다르게 분류된다.

9) 국민계정은 경제 개체의 활동 영역을 기준으로 거주자(resident)와 비거주자(non-resident)로 구분하고, 거주자는 비금융법인기업(non-financial corporations), 금융법인기업(financial corporations), 정부(government units), 가계봉사비영리단체(non-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s; NPISHs), 가계(households) 등 5개의 제도부문으로 구분한다.

분류는 고용 또는 투자와 연계한 생산성 분석 등에 유용하다. 한편, 산업은 동일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생산 단위의 집합(set of all production units)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통상 경제활동분류와 산업분류는 혼용하여 사용된다.

## 2. 통계식별단위

통계식별단위는 통계 분류를 부여하고, 기초자료를 수집·평가하는 등 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개체를 식별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경제 개체는 법률, 회계, 조직, 지리 등 다양한 기준으로 식별할 수 있는데, 각 통계의 생산 목적, 자료수집 및 국제 비교에 적합한 식별 단위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SNA는 하위 계정의 통계별 목적에 따라 적합한 통계식별단위를 제안하고 있는데, 생산 계정을 위한 경제활동의 분류는 사업장(establishment)을 식별단위로 권고하고 있다<sup>10)</sup>. 사업

10) 반면, 제도부문분류와 소득계정을 위한 식별단위는 기업(enterprise)을 권고하고 있는데 기업은 재화 및 서비스 생산자로서의 제도단위(institutional units)를 의미하며, 법인기업, 준법인기업, 비영리단체 또는 비법인기업의 형태를 취한다.

장은 단일 지역에 위치하며, 단일 종류의 생산 활동만 영위하거나 부가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생산 활동이 뚜렷한 기업 또는 기업의 일부를 의미한다. 경제활동분류를 위한 식별단위로 사업장을 권고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종류의 생산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enterprise) 단위보다 사업장 단위가 생산 활동의 동질성(homogeneous)이 높기 때문에 생산성 분석 등 생산계정 고유의 목적에 더 부합하기 때문이다.

### 3. 생산 활동의 유형과 결합 생산

생산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할 때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부수적 활동을 동반한다. SNA는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생산 관련 활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해당 사업장의 주 활동을 기준으로 경제활동을 분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① **주활동(principal activity)** : 특정 개체가 창출하는 총부가가치에 대해 가장 많은 기여를 하는 생산 활동
- ② **부차적활동(secondary activity)** : 주활동을 제외한 시장 판매 또는 별도의 사용을 위한 생산 활동
- ③ **부수적활동(ancillary activity)** : 주활동과 부차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회계, 운송, 보관, 구매, 판촉, 청소, 시설보수, 보안 등)

부차적활동과 부수적활동의 구분은 다소 모호할 수 있는데 해당 활동의 목적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면 부차적 활동으로, 단순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 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다. 기업 내에서 부수적 활동을 전담하는 별도의 사업장이 존재한다면 이는 해당 사업장의 주활동으로 포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수적 활동이 동일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이는 직접 소비 또는 사용할 목적의 활동이므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산출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sup>11)</sup>.

한편 생산 활동의 최소 단위인 단일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생산의 효율성 또는 기술적 요인 등의 사유로 현실에서는 복수(複數)의 생산품을 생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분류에 속하는 생산 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경우 주활동을 판별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11) 시장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부수적 활동일지라도 일부가 시장(제3자에게) 판매되거나 연구개발(R&D) 또는 자가 건축 등 고정자본형성을 위한 활동과 포장박스 등 생산물의 물리적 구성과 관련된 활동은 별도의 생산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참고〉

### 결합 생산의 유형

□ 동일한 사업장에서 복수(複數)의 산출물(output)을 생산하는 경우 결합 생산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① 서로 독립적인 생산물의 결합 생산(multiple activities)

별도의 생산 공정(원자재, 생산구조 등)에 의해 독립적으로 생산하는 경우로 ‘top-down’방식에 의해 주생산물을 판단하여 분류 (예 : 초콜릿과 빵)

② 수직적 생산물의 결합 생산(vertical integration)

단일 생산 공정 내에서 순차적으로 이전 단계의 생산물이 다음 공정의 원자재로 투입되어 새로운 생산물이 생산되는 경우로 각 단계별 부가가치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류 (예 : 섬유사와 직물)

③ 수평적 생산물의 결합 생산(horizontal integration)

단일 공정에서 서로 다른 성격의 생산물이 동시에(simultaneously) 생산되는 경우 (예 : 제철과 부생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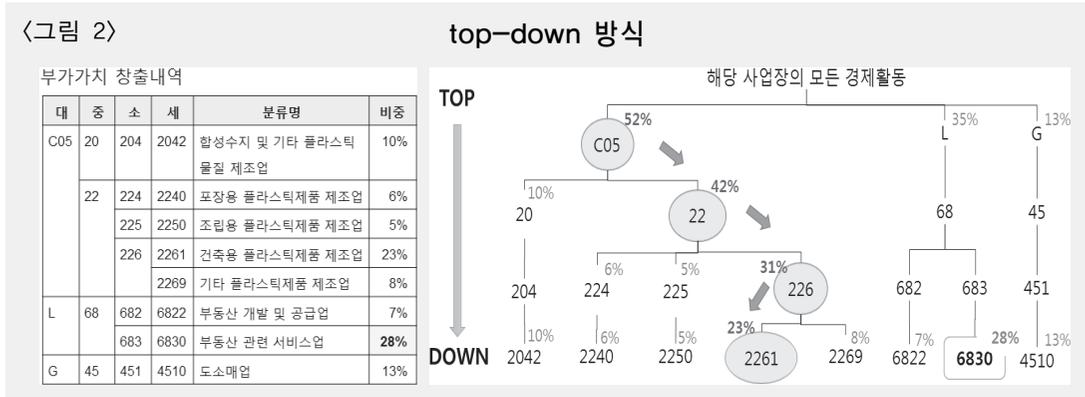
## 4. 주활동 판단 기준 : top-down 방식

단일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생산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경제활동은 주활동을 기준으로 분류하는데, 주활동이란 해당 사업장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value added)를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여기서 부가가치란 생산 활동을 통해 창출된 가치로 산출물의 평가액<sup>12)</sup>(value of output)에서 원·부자재 구입 등 중간투입 비용(intermediate consumption)을 차감한 값으로 정의하며, 기업회계의 영업이익과는 구분된다<sup>13)</sup>. 특정 생산품의 부가가치가 전체 부가가치의 과반(50%)을 차지할 경우 동 생산 활동을 해당 사업장의 주활동으로 간주하고, 만약 전체 부가가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활동이 없을 경우 top-down 방식에 따라 주활동을 식별한다<sup>14)</sup>. top-down 방식은 생산 활동(또는 생산물)을 그

12) 산출물의 평가액은 생산품의 시장 평가액(market value)으로 외부로 판매된 것뿐만 아니라 직접 소비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된 생산품 가액을 포함하므로 기업회계의 매출액보다 포괄범위가 넓다.

13) 부가가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피용자보수(compensation of employee), 고정자본의 가치 감소분을 의미하는 고정자본소모(consumption of fixed capital), 순생산세(net taxes on production), 영업잉여(operating surplus) 등으로 구성된다.

톱다운하여 경제 활동의 상위분류부터 계층적으로 분류하는 방법(hierarchical principle)으로 분류의 세분화 정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적인 분류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14) 각 생산 활동별 부가가치에 대한 정보가 가용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는 결국 생산을 위한 노동과 자본의 기여분을 의미하므로, 근로자수(number of staff), 임금(wage), 또는 산출물의 평가액(value of output)을 대안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 III. 국민계정 편제를 위한 경제활동분류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국민계정 통계의 편제와 활용에 초점을 맞춘 경제활동분류를 KCEAN (Korean Classification of Economic Activities for National accounts)으로 명명하고, 2015년 국민계정 개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본 절에서는 경제활동분류(이하 KCEAN) 개정의 기본 방향과 분류 체계, 주요 변경 내용 등을 요약한다<sup>15)</sup>.

#### 1. 기본 방향

경제활동분류를 개정함에 있어 우선할 고려 사항은 산업연관표, 국민소득통계, 국민대차대조표 등 각 통계에 적용 가능한 통일된 분류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국민계정 통계 간의 정합성과 편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하는 것이다. 따라서 KCEAN은 각 통계의 고유한 목적을 충족하고, 과거 계열과의 연계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포괄성을 갖추어야 한다.

다음으로 국내외 여타 산업분류와의 호환성이 요구된다.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민계정은 국가 경제를 대표하는 통계로써 UN, OECD, IMF 등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중요한 통계이므로 편제 기준은 물론 각종 분류 체계도 국제 기준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SNA는 각 국가의 경제활동분류를 표준화하기 위해 국제표준산업분류인 ISIC를 권고하고, ISIC는 가급적 표준화 수준을 중분류(division, 2-digit)까지 확장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표준화는 국가간 비교를 위해 불가피하지만, 각 국의 경제가 가지고 있는 개별성을 반영하기에는 제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분류는 국제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특수성을 잘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 고려 사항은 분류의 신설, 통합 등 개편이 용이해야 한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생산 활동의 출현과 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이질적 산업간 융합 등 구조적 변화의 주기가 짧아졌다. 이처럼 급변하는 산업 구조를 적시에 반영하되 과거 계열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개편에 따른 이용자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갖춘 분류 체계가 필요하다.

15) KCEAN ver.1의 세부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2015년 국민계정 개편」이 완료되면 함께 공표할 예정이며, 매 기준년 개편 시마다 변화하는 산업구조, 국제산업분류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변경 등을 반영하여 갱신(revision)할 예정이다.

## 2. 분류 체계

KCEAN은 대분류(section), 중분류(division), 소분류(group), 세분류(class)의 4단계로 구성된 계층적 분류(hierarchical classification) 체계를 도입하여 작성되었다<sup>16)</sup>. 계층적 분류는 분류의 통합, 신설 등 개편이 용이하고, 세분화 정도가 서로 다른 통계에 대해서도 상위 분류에서 연계가 수월한 장점이 있다.

KCEAN의 대분류는 분기 국민소득통계 등 단기(短期) 통계의 공표 기준이 되는 분류로써 총 32개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제조업(C)이 우리 경제 구조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반영하고 기존 국민계정 공표 수준을 고려한 것으로,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20부문(국민계정 추계 대상이 아닌 ‘section U : 국제기구’는 제외)보다 더 자세한 수준이다<sup>17)</sup>. 중분류는 여타 산업 통계와의 연계 및 비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빈번한 분류이므로 최대한 국제산업분류의 포괄 범위 및 기준에 따라 78개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소분류와 세분류는 각각 174개, 278개로 구분하였는데, 국내 산업의 중요도 및 이용자 편의 등을 고려하는 한편 과거 계열과의 연계를 최대한 유지하려 하였다.

〈표 1〉

국·내외 경제활동분류 체계 비교<sup>1)</sup>

(단위: 부문수)

	대분류 (section)	중분류 (division)	소분류 (group)	세분류 (class)
ISIC Rev.4	20	87	236	417
NACE Rev.2	20	87	270	613
KSIC 10차 <sup>2)</sup>	20	76	231	493
<b>KCEAN<sup>3)</sup></b>	<b>32(+2)</b>	<b>78(-4)</b>	<b>174(+13)</b>	<b>278(-50)</b>

1) 국제기구(section U) 및 자가소비를 위한 가계의 서비스 생산은 국민계정 추계대상이 아니므로 제외

2) KSIC는 세세분류(1,193개)까지 5단계 체계임

3) ( ) 는 2010년 기준 분류 대비 증감

16) 기존 경제활동분류는 각 단계마다 별도의 코드가 부여되어 하위분류가 조정되는 때 개편 때마다 과거 계열과의 연계가 다소 번거로운 단점이 있었다.

17) ISIC는 국민계정의 국제 비교성을 높이기 위해 대분류를 통합한 10개부문(high-level SNA aggregation) 분류를 권고하고, 이를 38개부문까지(intermediate-level SNA aggregation) 확장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표 2〉

국민계정 편제를 위한 경제활동분류(KCEAN) 체계

ISIC	KSIC	KCEAN				
		코드	항 목 명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A	A	A	농림어업	3	9	13
B	B	B	광업	3	5	5
C	C	C01	음식료품제조업	3	12	23
		C02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3	5	11
		C03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업	3	5	12
		C04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	2	3
		C0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3	16	24
		C0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	5	10
		C07	1차금속 제조업	1	8	17
		C08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	4	9
		C09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제조업	1	9	20
		C10	전기장비 제조업	1	6	8
		C11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	9	20
		C12	운송장비 제조업	3	7	12
		C13	기타 제조업 및 산업용 장비 수리업	3	3	9
D	D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	3	3
E	E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4	4
F	F	F	건설업	3	8	9
G	G	G	도소매업	1	1	1
H	H	H	운수업	5	11	14
I	I	I	숙박 및 음식점업	2	2	3
J	J	J	정보통신업	6	8	12
K	K	K	금융 및 보험업	3	4	4
L	L	L	부동산업	1	3	4
M	M	M	전문, 과학 및 기술 관련 서비스업	4	6	7
N	N	N	사업 지원 서비스업	4	4	4
O	O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1	2	2
P	P	P	교육서비스업	1	1	1
Q	Q	Q	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	2	2
R	R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	5	6
S	S	S	기타 서비스업	3	4	5
T	T	T	가구 내 고용 및 미분류 자가소비 생산활동	1	1	1
20	20		32	78	174	278

\* ISIC 및 KSIC의 국제기구(Section U)는 제외

### 3. 주요 변경 사항

기존 국민계정의 경제활동분류(2010년 기준년 개편)와 비교하여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산업용기계 및 장비 수리업

자동차수리, 기계장비수리,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 등 수리서비스업은 기존에 기타서비스업(S)에서 포괄하고 있었으나, ISIC 4차 개정과 KSIC 10차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산업용기계 및 장비 수리업을 제조업(C)으로 이관하였다. 한편 ISIC는 자동차수리 및 세차업을 도소매(G)에서 분류하고 있지만, KSIC는 자동차수리를 기타서비스업(S)으로 분류하고 있어, KCEAN은 KSIC에 따라 자동차수리서비스를 기타서비스업(S)으로 분류하였다.

#### 나. 사회보장보험

사회보장보험은 민간이 운영하는 생명보험, 손해보험과 달리 국가가 주도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장성 보험을 의미하는데 기존 경제활동분류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Q)에서 분류하였다. 이와 달리 KSIC는 사회보장보험을 여타 민간보험과 같이 금융보험업(K)으로 분류하는 반면, ISIC는 정부서비스로 분류하고 있다. 사회보장보험은 국제분류 기준과 일치시키는 것이 국민계정의 편제 목적과 국가간 비교 등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서비스(O)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 다. 건설업

SNA는 건설업(F)의 경우 다른 산업과 달리 각 공사 현장을 개별 사업장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기존 경제활동분류는 각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나, 이러한 공종별 분류는 사업체의 업종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 여타 산업분류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기초자료 이용과 비교에 어려움이 있었다. 금번 KCEAN은 건설업의 경제활동을 사업체의 업종 기준으로 분류하여 KSIC 등 산업분류와 통일성을 높였는데, 다만 상품분류는 투입구조분석 등에 유용한 기존의 공종별 분류를 유지하였다.

〈표 3〉

건설업의 공종기준 분류와 업종기준 분류

(공종기준 분류)			(업종기준 분류)		
18	<b>건설</b>		F	<b>건설업</b>	
	51	<b>건물건설 및 건축보수</b>		41	<b>건물 건설업</b>
		108 주거용 건물			411 주거용 건물 건설업
		281 주거용 건물			4110 주거용 건물 건설업
		109 비주거용 건물			412 비주거용 건물
		282 비주거용 건물			4120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110 건축보수			42 <b>토목 건설업</b>
		283 건축보수			421 도로 및 철도시설 건설업
		52 <b>토목건설</b>			4210 도로 및 철도시설 건설업
		111 교통시설건설			429 기타 토목 건설업
		284 도로시설			4290 기타 토목 건설업
		285 철도시설			43 <b>전문 건설업</b>
		286 항만시설			431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112 일반토목시설건설			4310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 공사업
		287 하천사방			432 건축관련 전문 건설업
		288 상하수도시설			4321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289 농림수산토목			4322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290 도시토목			439 기타 전문 건설업
		113 산업시설건설			4390 기타 전문 건설업
		291 환경정화시설			
		292 통신시설			
		293 전력시설			
		294 산업플랜트			
		114 기타건설			
		295 기타건설			

\*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구분

라. 회사본부

회사본부<sup>18)</sup>는 기업내 부수적 활동을 전담하는 별도 사업장을 의미하는데, 기존 국민계정은 회사본부의 활동을 별도의 생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소속 사업장 생산의 일부로 포함하여 처리하였다. 이는 기존 경제활동분류가 투입산출표의 상품분류에 기초하여 발전하였기 때문<sup>19)</sup>인데, 여타 산업분류와 상충되는 부분이다. 세계화 전전에 따라 여러 국가에 생산 네트워크를 둔 글로벌 기업이 늘어나 회사본부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는 등 전담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부수적 활동을 별도의 생산으로 포착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18) 직접적인 생산 활동은 수행하지 않고 회사 또는 기업의 전략이나 조직 기획, 의사 결정, 소속 사업체의 운영 및 관리 등을 전담하는 본사 및 지사를 의미한다.

19) 상품분류 기준의 투입산출표는 생산과급효과 등 산업연관분석이 주목적이므로 생산기술구조(투입계수)의 안정성을 위해 회사본부의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부수적 활동과 관련한 비용을 별도로 포착하지 않고 직접 생산의 중간투입 비용으로 처리한다.

회사본부 및 경영컨설팅을 신설(소분류)하고,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M)으로 분류하였다.

그 외에 우편서비스는 ISIC에서 운수업(H)으로 분류하고 있는 반면, KSIC는 통신업(J)으로 분류하여 국제 기준과 국내 기준이 상충된다. 우편의 경우 과거에는 정보전달의 수단으로 인식하여 통신업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체국 택배 등의 기능이 추가되면서 생산구조나 수요구조에서 운수서비스업과 유사성이 높아졌고, 또한 정보통신업은 국민계정에서 국제 비교가 빈번한 부문이기 때문에 우편서비스를 운수업으로 이관하여 국제기준과의 통일성을 제고하였다. 다음으로 부동산 및 임대업(L)의 하위 부문인 장비 및 용품 임대는 KSIC 10차 개정에서 사업지원서비스업(N)으로 이동한 것을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가구내 고용 및 미분류 자가소비 생산활동(I)은 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공유경제 등 기업이 아닌 가구의 생산 활동이 출현으로 향후 비중이 늘어날 것을 고려하여 대분류로 분리하였다<sup>20)</sup>.

20) 기업이 아닌 가구의 생산 활동이라는 차별성으로 인해 ISIC 등 국제 분류에서도 별도의 대분류로 구분하고 있다.

〈표 4〉

경제활동분류 신·구 연계표(대분류)

개정(안)		2010년 분류		비 고
A	농림어업	1	농림어업	
B	광업	2	광업	
C01	음식료품제조업	3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C02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4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C03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업	5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업	
C04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C0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7	화학제품제조업	
C0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8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07	1차금속제조업	9	1차금속제품제조업	
C08	금속가공제품제조업	10	금속제품제조업	
C09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제조업	13	정밀기기제조업	전기 및 전자 기기 제조업 일부를 정밀기기와 통합
C10	전기장비제조업	12	전기 및 전자 기기 제조업	
C11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1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12	운송장비 제조업	14	운송장비제조업	
C13	기타제조업 및 산업용 장비 수리업	15	기타제조업	산업용장비 수리업을 포함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6	전력, 가스 및 증기업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7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업	
F	건설업	18	건설업	하위 분류 체계 변경
G	도소매업	19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업	20	운수업	우편업 포함
I	숙박 및 음식점업	21	음식점 및 숙박업	
J	정보통신업	22	정보통신 및 방송업	우편업 운수업으로 이관
K	금융 및 보험업	23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24	부동산 및 임대업	장비 및 용품 임대는 사업 지원서비스로 이동
M	전문, 과학 및 기술 관련 서비스업	2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회사본부 포함(신설)
N	사업지원서비스업	2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장비 및 용품 임대 포함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27	공공행정 및 국방	사회보장 보험 포함
P	교육서비스업	28	교육서비스업	
Q	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9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회보장보험을 타 부문으로 이동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0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세분화 (기계 및 장비 수리업 타 부문이동)
S	기타서비스업			
T	가구 내 고용 및 미분류 자가소비 생산활동			

〈참고〉

**KCEAN과 KSIC의 차이점**

□ 경제활동분류(KCEAN)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기초하고 있으나 국민계정통계의 편제 및 이용과 국제비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부문을 조정하였으며, KSIC(10차 개정)와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광업지원서비스는 KSIC에서 광업(B)에 포함되나 국내 산출액 규모가 미미(2014년 기준 245억원)하고, 주요 사업체가 채굴을 직접 수행하는 광산업이 아닌데다, 서비스의 성질은 오히려 지질조사 및 탐사 등 과학기술서비스와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M)로 분류
- 우편업을 운수업(H)으로 분류하고 있는 ISIC와 달리 KSIC는 통신업(J)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배분구조 및 서비스 행태가 운수서비스와 더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여 국제분류와 같이 운수업에 포함
- KSIC는 사회보장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금융보험업(K)으로 분류하나, ISIC를 따르는 대부분의 국가는 정부서비스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어 국가간 비교에 혼란을 야기함에 따라 국제기준에 맞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서비스(O)로 분류
- 여행사 및 여행보조서비스의 경우 KSIC는 사업지원서비스(N)로 분류하지만, 국내의 경우 여행객 모집에 따른 수수료 수입보다는 관광 상품 개발 및 판매 등 對 개인 서비스 성격의 매출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서비스(R)와 유사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

	KSIC	ISIC	KCEAN
■ 광업지원서비스업*	광업(B)	광업(B)	과학기술서비스(M)
■ 우편업	통신업(J)	운수업(H)	운수업(H)
■ 사회보장보험	금융업(K)	공공행정(O)	공공행정(O)
■ 여행 관련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N)	사업지원서비스(N)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서비스(R)

\* ISIC와 상이한 부문에 대해서는 국내 현황을 추가 검토하여 확정(안)에 반영할 예정

## IV. 맺음말

현재 국민계정 편제의 국제기준인 2008 SNA는 국민계정 통계 사이의 정합성(harmonization)을 높이고 국가별 편제 기준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국제 비교를 더 용이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계정은 2010년 기준년 개편을 통해 2008 SNA의 개정 사항을 선도적으로 이행하였다. 금번의 2015년 기준년 개편에서는 국민소득, 산업연관표, 국민대차대조표 등 실물 통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여타 산업 통계와의 호환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계정 편제를 위한 경제활동분류를 정비하였다. 또한 ISIC 등 국제 분류 기준과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과거 계열과의 연계성을 유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었다. 특히 우리 고유의 경제 환경을 반영한 자체 분류 체계를 갖추었으므로 국내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급변하는 구조적 변화에 보다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화 진전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성장과 수직분업화의 확산,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생산공정의 외주 및 전문화에 따른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 등 대내외 경제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소위 4차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서비스 등 새로운 생산 활동의 출현으로 전통적인 산업의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는 산업 지형을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할 것인가가 국민계정 편제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한 국은행은 관련 이슈에 대한 검토와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진행될 국제적 논의에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한편, 통계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를 정비하고 편제 기법을 개발하여 새로운 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경제통계국 투입산출팀 이인규 차장, 김윤경 조사역>

## 참고문헌

- 김승철·김영태 외 2명(2013), “국민계정 작성기준의 변경과 그 영향”, 「국민계정리뷰」 2013-4호.
- 통계청(2017), 「한국표준산업분류」 .
- 한국은행(2011), “공급사용표의 도입 필요성과 작성방법”, 「국민계정리뷰」 2011-1호.
- 한국은행(2014), “국민계정의 새로운 국제기준(2008 SNA) 이행 특집호”, 「국민계정리뷰」 2014-3호.
- 한국은행(2014), 「산업연관분석해설」
- 한국은행(2014), 「알기쉬운 경제지표해설(2014년 개정판)」
- 한국은행(2015), 「한국의 국민계정, 2014」
- EC, IMF, OECD, UN, WB(2009),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08”
- UN(2008),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All Economic Activities(ISIC) Revision4*” statistical papers.
- Eurostat(2008),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economic activities in the European Community (NACE) Revision2*”
- United States(2017),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NAICS 2017)*”